

곡성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관내 교직원 · 학생들 참여 양수발전소 유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곡성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성문)와 관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참여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지난 17일 들말센터에서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하여 곡성지원청 노명숙 교육장, 곡성미래교육재단 신정화 본부장 및 교직원, 학생, 추진위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양수발전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날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양수발전소의 원리와 역



할,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양수발전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

숙사 마련, 영아마을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교육 관련 지원과 양질의 교육정책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곡성미래교육재단 신정화 본부장은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했다.

곡성은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이다. 생태 1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이 없고, 상하부지간 최단거리로 설비유지관리 편의성이 우수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점에서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장점이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진로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등 양질의 교육지원 정책과 지역경제발전, 관광명소화에 도움을 주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황상연 기자

‘보성물’과 함께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오는 24일까지 20% 할인 · 롤릿 이벤트 등 진행

보성군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특가로 알뜰 쇼핑족들을 만족시키는 블랙프라이데이 열풍이 보성군 농산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성군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11. 20. ~ 11. 24.)을 맞이해 보성군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수량 소진 시까지 선보인다.

관내 품목은 축산, 과수, 쌀 등이다. 특히 제철을 맞이한 보성 키위와 햅쌀 판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소 2천 원부터 최대 10만

원 당점이 가능한 롤릿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 매일 500원을 지급하는 출석 이벤트 등의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회원 유입과 기존회원 구매 유도를 통한 보성물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11월은 여러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달로 소비 심리가 상승하는 시기이다.”라며 “이 기간 소비자가 보성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벤트와 홍보를 진행해 보성물 매출 상승에 이끌어 나가도록 중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이집트 왕자’ 공연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3일 저녁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뮤지컬 ‘이집트 왕자’를 주제로 제12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노예’ 곡을 시작으로 총 17개 곡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브리인이 모두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대에 왕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를 화려한 무대와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박기수 연출자가 총괄 기획했으며, 극단 ‘중인’과 함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이 배역을 맡아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풍성한 흥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박양군 문화예술포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합창으로 그간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정기공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현장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구례군의회 ‘맨발걷기 활성화·지원 관한 조례’ 제정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양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준식 의원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경우 사계절이 가능한 맨발걷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공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 단장 할 경우 맨발걷기 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양준식 의원은 “맨발걷기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은 장소에도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가 조성돼 군민들이 접지권을 누리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샌프란시스코서 지속가능한 도시 철학 확인

노관규 시장 “순천시의 도시철학과 많이 닮아 깊은 감명”

국의 출장 3일 차인 지난 18일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UCLA,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

앞서 2일 차인 17일에는 순천시 노관규 시장 일행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이케아의 모회사 ‘잉카그룹’과 8개의 급커브길로 유명세를 얻은 ‘롬바르드 거리’를 찾았다.

잉카그룹은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의 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성은 이케아의 영원한 테마”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잉카그룹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을 위해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필품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재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노 시장은 이케아 그룹이 지구와 환경을 위해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순천시의 도시철학과 많이 닮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잉카그룹의 경영철학과 케를 같이 하고 있는 순천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지속가

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9월에는 탄소중립도시 10개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노 시장 일행은 잉카그룹에 이어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롬바르드 거리를 방문했다. 롬바르드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지그재그 길로, 한해 3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다.

롬바르드는 케이블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길을 연결하고, 주요 지점에 뷰 포인트를 조성해 사람이 직접 걸어야만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해 자동차보다는 보행이 편한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노 시장은 “걸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며, “거리 거리마다 스토리를 입혀 사람이 걷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시, 광양읍수 · 이팝나무 생육상태 점검

정인화 시장, ‘천연기념물 제235호’ 전문가 의견 수렴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이 지난 17일 11월 중 제2차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광양읍 유당공원 이팝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로 1971년 9월 13일 천연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됐으며, 한국에서 자라는 이팝나무 중 균형 잡힌 수세와 수형이 첫째로 꼽힌다. 2007년에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광양읍수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유당공원에는 이팝나무, 푸조나무,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 26주의 노거수가 있고 인동숲 공원에는 40주의 노거수가 있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아늑한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날 정인화 시장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도급사와 의견을 나누고 이팝나무 생육환경 모니터링 결과, 노거수 주변 물이 많아 뿌리가 물에 잠겨있는 시

급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치수벽 설치와 토양 개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문화재청에 생육환경 개선 허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쉼터인 유당공원 및 인동숲에 조성돼 있는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의 문화유산적 보존 및 역사적 가치를 엄중히 여겨 상시 모니터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광문현답’ 소통시정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2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견수렴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1YUyYkSbhc69g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